

추억의 영화 보며 치매 예방…목포시 ‘기억드림 극장’ 운영

치매안심센터서 3월~11월까지 놀이·상담 등 총 38회 제공
경로당 어르신·재활보건사업 대상자…정서 안정·교류 도움

영화로 잊혀진 기억을 잊다.
목포시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기억드림(dream)극장’을 운영한다.

목포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기억드림극장’은 영화 관람을 매개로 치매 예방 체험과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씩 총 38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

터 내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과 경로당 어르신, 재활보건사업 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용차량을 활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 편의를 높이고, 영화 상영 전·후에는 칠교놀이와 퍼즐맞추기 등 인지 자극 활동과 맞춤형 치매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영 작품은 관내 도서관과 연계해 DVD 자료를 활용하며 ▲카시오파 ▲수상한 그녀 ▲리틀 포레스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 세대 공감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영화들로 구성됐다.

상영 후에는 영화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 간 정서적 교류도 도모한다.

목포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

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치매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기억드림극장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활력을 높이는 통합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친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 노인 일자리 2859개 공급 ‘역대 최대’

128억 투입…전년비 478명 늘려

영광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영광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총 128억원을 확보해 37개 사업을 운영하고, 어르신 28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3억원 증액하고, 참여 인원은 478명 늘린 것으로 전남 군 단위 기준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형,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사업 운영은 영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청암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과 각 읍·면사무소가 맡는다.

참여자들은 밭 대식과 안전교육을 거쳐 이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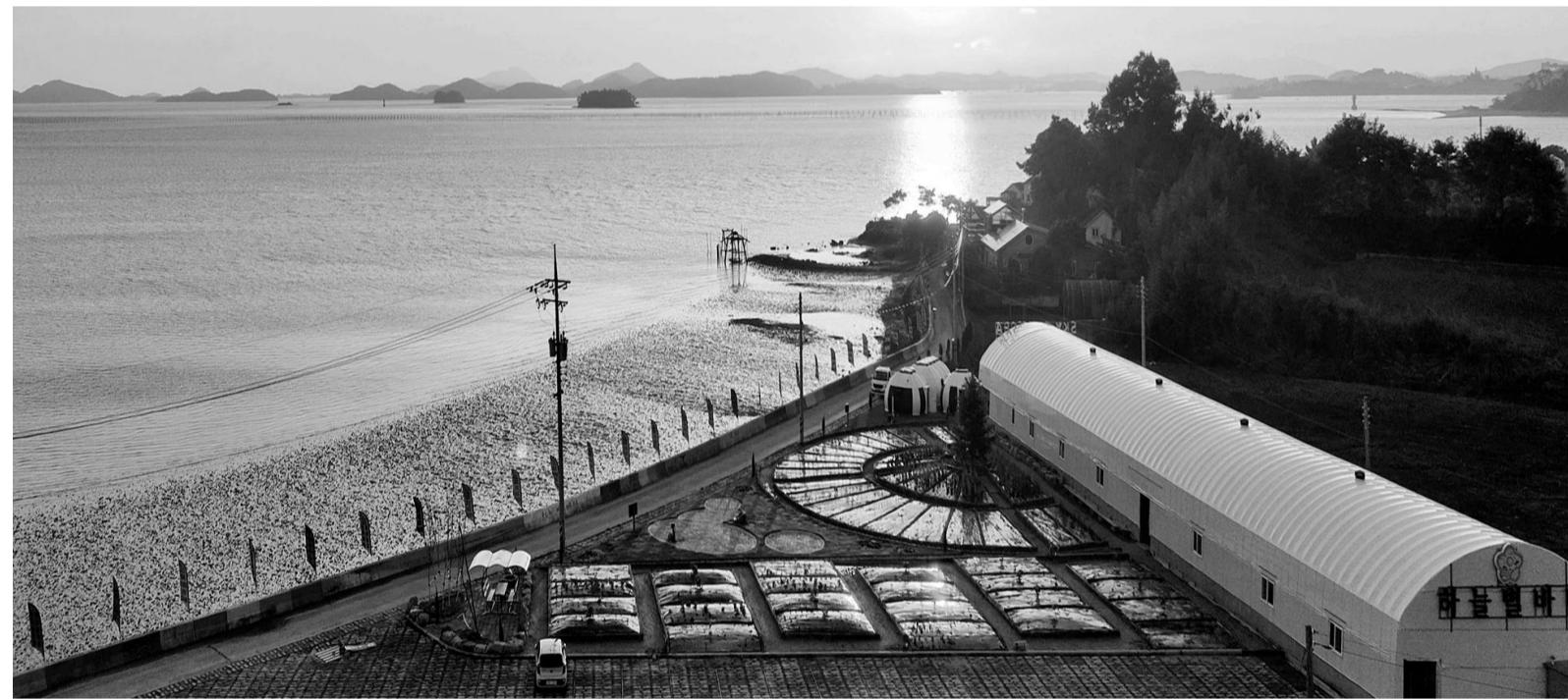
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급여는 공익형 월 29만원, 역량 활용 사업 월 63만 4000원, 공동체 사업단 연 267만원 수준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용삼 기자 2yong3@kwangju.co.kr

무안 갯벌서 즐기는 ‘웰니스’ 전국이 주목했다



무안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하늘별바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하늘별바다’

문화체부 ‘2026 유품두레’ 선정

주민 주도 성공 관광 사례로 평가

무안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인 ‘하늘별바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유품두레’에 선정됐다.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주민 참여형 관광 육성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숙박·식음·체험·기념품·여행 분야의 창업과 경영 개

선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유품두레’는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 260개 주민사업체 가운데 8곳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무안군 관광두레 사업체인 하늘별바다가 포함됐다.

하늘별바다는 무안의 황토갯벌과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갯벌체험과 맨발걷기,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합문화공간 ‘별돔’을 조성하는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업 구조를 구축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웰니스 관

광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모델을 시도하며 주민 주도 관광의 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안 관광두레 사업을 담당하는 손은 에 PD는 3년 연속 최우수 PD로 선정돼,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평가를 받았다.

무안군 관광두레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주민들이 이 중심이 돼 추진해 온 관광 활동의 과정이 평가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관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 농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교육



진도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17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인증 의무교육’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간신히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진도군의 친환경 농가는 총 995 농가(유기농 651, 무농약 344)이며, 재배면적은 2249헥타르(ha)(유기농 1574, 무농약 675)로 집계됐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 청년들 교류 장려

10개 동아리 100만원씩 지원

영암군이 지역 청년의 교류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창업, 문화, 자기계발, 봉사, 지역발전 연구, 기타 활동 등 6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 대상은 19~49세의 생활 기반이 영암군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동아리 구성원 중 40% 이상이 영암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총 10개 동아리를 선정해 1개 동아리 당 지원금 70만원과 자부담 30만원으로 활동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교육비, 강사비, 재료비 등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암군 청년지원팀에 20일까지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3월 중 심사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연말에는 활동 성과 공유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는 영암군 청년지원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두촌쿠’ 보다 ‘해남꿀구마떡’

해남군, 고구마 활용 떡 브랜드 출시…12·13일 시식 행사



해남군이 대표 특산물인 해남고구마를 활용한 떡 브랜드 ‘해남꿀구마떡<사진>’을 선보인다.

해남꿀구마떡은 지난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가공상품으로 소가 들어간 인절미 종류의 오쟁이떡이다. 찹쌀 반죽에 해남고구마를 듬뿍 넣어 고구마 특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해남꿀구마떡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식 흥보 행사도 진행된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화 가공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고구마꿀순간떡, 고구마오쟁이떡, 고구마꿀떡 등 3종의 고구마 떡 제품을 개발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떡류뿐만 아니라 고구마칩과 고구마 페이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확대해 해남 고구마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에 탄소중립 교육 ‘에듀센터’ 착공

체험·전시 대규모 인프라 구축

해남군에 올 하반기 국가 탄소중립 교육시설인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착공한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환경교육 거점이다.

센터는 솔라지도 기업도시 내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389억 원을 투입해 교육·체험·전시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환경학습 인프라로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는 부지면적 4만 9330㎡, 건축면적 4989㎡ 규모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해 현재 한국 환경공단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남군민·관광객·교육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 내 어린이 체험실, 상설전시실, 실감영상관, 교육 프로그램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감도.

운영돼 전국에서 연간 1000만 명까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형 ESG행정 등 선도 정책과 미래산업 유틸리티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노려 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인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농어촌 지역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국립완도난대수목원 군민과 비전 공유

완도군, 주민설명회…향후 계획 발표·주민 의견 청취

완도군이 산림청, 전남도와 공동 주관으로 지역 민을 대상으로 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주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지난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 공청회, 지역 협력 체계 구축, 관계 기관 실무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주민 공개 설명회는 착공 전 주민들에게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열린 설명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정섭 전라남도 환경산업국장,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한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사업단에서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용역사에서는 ▲수목원 기본설계 용역 내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는 ▲국가수목원 지역

상생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노레일 연장 검토, 조기 착공·준공, 지역 민 참여 기회 확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1815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남부 해안과 도서 지역에 분포한 난대·아열대 권역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연구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자원 보전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이다.

사업은 올해 내 대형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 우선 시공권을 조기 착공하고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연간 42만 명 방문, 고용 유발 효과 1만 5000여명, 1조 4000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